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캠퍼스 착공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22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연면적 1만 8078㎡ 규모의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시설공사만 총 25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한전이 지난 2월 5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자력교육원 내 건축부지를 인수해 4월 캠퍼스 상세설계를 완료했고, 5월 3일 건축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됐다.

국제 원자력 캠퍼스는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비해 지도자급 실무형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이어 2011년 9월 준공해 201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한전-포스코, 호주 유연탄광산 잇달아 인수



김쌍수
한국전력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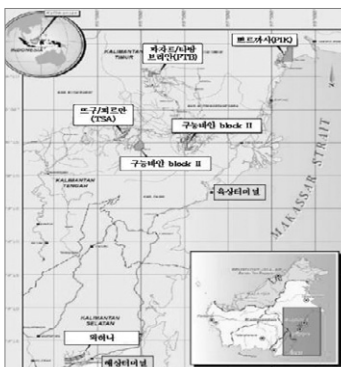
정준양
포스코 회장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호주의 유연탄 광산을 잇달아 인수했다.

한전은 세계 3위 유연탄 수출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을 4억호주달러(약 419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광산은 유연탄 매장량이 총 4억2000만톤으로 한국의 국외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한편 포스코도 포스코의 호주법인인 포사(POSA · Posco Australia)를 통해 앵글로아메리칸사가 내놓은 서튼포리스트 광산 지분 70%를 5000만호주달러(530억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30%는 호주 광산개발업체인 코카투사가 인수했다.

한전FURRHDSA, 인니 유연탄 업체 지분 5억 弗에 인수



바얀 리소스 소유
주요 광구도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유연탄 기업인 바얀 리소스의 주식 20%를 인수하는 투자안을 의결했다.

투자금액은 5억1천500만 달러(6천180억원)로, 지분 인수 후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전은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2012년부터 연간 200만t, 2015년부터는 연간 700만t의 유연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유연탄 자주개발률은 24%에서 34%로 상승한다.

또 이 날 이사회에서 캐나다 워터베리 레이크 우라늄 탐사광산에 대한 2차 정밀탐사 출자 안건도 의결했다.

한수원, UAE에 수출할 원전과 동일한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설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5일 울산시 신고리 3호기 원전건설 현장에서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 김쌍수 한전사장, 그리고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로설치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원자로는 내경 4.6m, 높이 14.8m, 무게 533톤의 원통형 압력용기로서 한국형표준원전(OPR1000)에 비해 설비 용량은 40%, 설계수명은 20년이나 증가되었다. 또한 안전설비 추가 설치 및 내진설계 강화 등으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신고리 3,4호기는 지난해 수주한 UAE 원전의 참조발전소로 국내 최초 1,400MW급 대용량 신형 원전으로 1992년부터 10여년간 ‘국가선도 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 국내 기술진의 건설, 시운전 및 운전경험에 최신 원전기술 등을 접목해 개발한 3세대 신형 원전이다.

한수원, 경주로 본사 법인등기 이전 완료



본사를 경북 경주로 이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로 법인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9일 임시 본사인 경주시 성동동 KT 건물에 직원 100여명을 출근시킨 뒤 본사 주소지를 경주로 옮겼다.

한수원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2014년까지 사옥을 건립해 서울 본사를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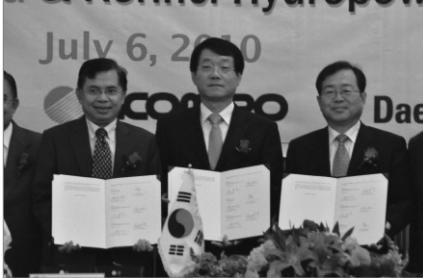
한국남동발전, 전사통합전산센터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영흥화력본부에 전사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 원활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사 전산시스템업무를 일원화했다.

전산센터는 그동안 사업소별, 업무별로 산재해 있던 전산시스템을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시스템간 연계성을 높이고 시스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전산센터 내에 ERP 전용관제시스템을 설치해 ERP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고, 향온·향습기 누수 감시센서 설치 등 장애감시 설비를 대폭 보강해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또한 가능해졌다.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2개 수력발전사업 MOA체결



한국중부발전과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달 6일 인도네시아 하지칼라사와 인도네시아 내 2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관리와 운영 및 유지보수(O&M)업무, 대우엔지니어링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턴키(EPC)업무, 하지칼라사는 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서부발전-대한전기학회, 발전연구회 창립



한국서부발전과 대한전기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30개 기업과 7개 대학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발전연구회(회장 이재구 중부발전 기술본부장)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 환경규제 강화, 전력분야의 세계시장 진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전력전기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남부발전-두산중-대림산업,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공사 맞손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7일 대치동 본사에서 두산중공업·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대비공사' 계약 서명식을 열고 성공적인 대비공사를 다짐했다.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설비용량 2000MW)는 최첨단, 친환경의 저열량탄 발전소로 건설되며, 대비공사는 2014년 2월까지 45개월 동안 총 3914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다. 2015년 12월께 준공하는 발전소에는 세계 최초의 300MW급 건식 CCR(Carbon Capture & Reuse) 상용화 실증설비를 비롯해 국내서는 처음 시도되는 최첨단·친환경 발전설비들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인도1320MW 석탄발전소 진출



- 사하라파워와 석탄화력발전사업 MOA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지난달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 사하라파워와 총사업비 16억 달러의 석탄화력발전소(설비용량 1320MW)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MOA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양사는 금년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사하라파워 사장단의 동서발전 방문으로 MOA가 체결됐다.

동서발전은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소 운영 및 건설 기술지원, 정비업무 수행 등이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KDN, 노사관계 선진화 단협 체결

한전 KDN은 지난달 11일 공기업 최초로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체결된 단협은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만 시간으로 조정하고, 유급 전임자를 풀타임 4명, 파트타임 2명으로 제한했다. 또 조합간부 인사이동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하고, 조합간부의 징계 시 협의해야 하는 등의 경영권 침해 조항을 삭제했다.

한국전력기술, 새 얼굴로 다시 뵈다



한국전력기술이 1982년부터 사용해 오던 영문 사명 'KOPEC' 을 'KEPCO E&C' 로 변경,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국문 사명은 현재의 '한국전력기술(주)' 를 유지한다.

이번 사명 변경은 지난해 10월 선포한 '글로벌 톱 5 파워 EPC 리더' 비전에 따라 발전 EPC(설계·구매·시공)사업 의지를 가시화하고, 인지도 제고, 전력그룹사 브랜드 통합을 통한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CI는 2개의 원이 결합된 무한궤도로 영원성을 뜻하며, 회사의 불멸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중앙의 선 모양은 영원한 빛을 나타내고 회사의 진취성과 세계지향성을 상징한다

美 최대 태양광발전소, 현대중공업이 짓는다

- 발전소 1기 8400억원 규모... 1차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미국 그린에너지 전문업체인 마티네에너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일대에 9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1차 물량인 175MW급 발전소 1기 총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사례이며, 독일·중국·스페인 같은 경쟁국들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S전선, 국내 첫 엄빌리컬 케이블 개발

LS전선이 해양 엔지니어링용인 '엄빌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엄빌리컬 케이블은 해저 공사에 투입되는 원격조종 무인해저잠수정(ROV)의 전원 공급과 신호 제어, 통신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LS전선은 진도-제주 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해양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 이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 제품 개발로 유럽과 미주 지역 업체들이 독점해온 세계 엄빌리컬 케이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로벌 엄빌리컬 케이블 시장규모는 연간 2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KEA

